

‘미나리’ 25만 돌파 속 화제만발 ‘윤여정 어록’

“축구경기에서 이긴 기분”
“난 그저 내자신이고 싶다”

윤여정

‘윤머들다’, ‘휴먼여정제’…

3일 개봉해 첫 주말인 7일 현재까지 25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미나리’의 윤여정(74)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는 ‘윤여정에게 스며들다’(윤머들다)는 표현만큼 강한 개성과 “어우! 내 정신 좀 봐! 나, 증말” 등 탈권위적이며 특유의 거침없고 빠른 말투(휴먼여정제)의 매력으로 연기 데뷔 55년 만에 최전성기에 올랐다. 최근 다양한 인터뷰를 통해 내놓아 화제를 모으며 ‘윤여정 어록’으로 묶인 명언도 방증이다.

● “나라가 넓으니까 상이 많구나”(2월26일 온라인 화상 인터뷰)

윤여정은 ‘미나리’로 7일 현재까지 미국에서 28개의 여우조연상을 안았다.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에 현지로 날아가지 못한 그는 이 가운데 단 1개만 실제로 전달 받았다. 그는 “그냥 나라가 넓으니까 상이 많구나 생각한다”며 재치 있는 답변으로 겸손해했다.

최근 ‘윤머들다’는 말에 “(젊은이들이)날 좋아한다? 비호감 1위를 한 적도 있다”면서 “오래 살아야 해”라고 답했다. 대중적 호감에 감사하며 오랜 세월 오로지 일만을 생각하며 살아온 자신에 대한 격려였다.

● “정이사 감독이 우리의 맛있는 주장”(1일 ‘미나리’의 골든글로브 외국어영화상 수상 소감)

윤여정은 “축구경기에서 이긴 기분”이라며 연출자 “정이사 감독이 맛있는 주장이었다”고 찬사를 보냈다. 이어 “이 주장과 다시 한번 시합에 나가고 싶다. 이 나이에”라며 자신과 ‘팀 미나리’의 성과를 자랑했다.

정 감독이 2018년 송도 유타대 아시아캡퍼스 강단에 서면서 두 사람은 처음 만났다. 최근 외신 인터뷰에서 “정 감독이 아들 같았다”고 돌이킨 윤여정은 정 감독·스티븐 연·한예리와 2019년 미국 오클라호마주 털사의 뜨거운 태양벌을 견뎌내며 활영했다. 주먹을 빌려 생활한 이들은 함께 밥을 해 먹으며 소통했다.

● “Not tonight, maybe tomorrow.”(1월15일 tvN ‘윤스테이’)

외국인 전용 한옥스테이를 ‘윤영’ 중인 윤여정이 오징어먹물 요리를 보며 “우리를 독살하려는 건 아니죠?”라는 손님의 농담에 내놓은 답변. “нат 투나잇, 메이비 투모로(오늘밤은 아니예요, 내일은 몰라도)”라며 한껏 웃음을 자아냈다. 55년의 고단한 연기생활 속에 1974년 이후 10여년 동안 미국에서 지낸 경험으로 영어 소통이 가능한 배우의 노력함이다. 풀한 듯, 입가의 열은 미소는 배우의 감성까지 드러냈다. 독특한 위상을 굳혀온 그는 “한국의 메릴 스트립으로 불린다”는 말에 “난 한국사람이고 한국배우”라면서 “내 이름은 윤여정이다. 나는 그저 내 자신이고 싶다”며 연기 인생에 대한 자부심으로 답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아널드 파머 인비테이셔널 3R | 전세계 골프팬 열광케 한 ‘헐크’ 디샘보

호수 훌쩍 넘어 3700야드…파5홀 ‘괴력쇼’

(약 338m)

개막전 “상황따라 원온 시도” 공인
뒷바람 불자 호수 공략 드라이버 샷
2003년 이후 이 홀서 기록된 최장타
“호수 넘겼을 때 우승때처럼 기뻐다”

‘괴력의 장타자’로 거듭난 ‘필드 위의 물리학자’ 브라이슨 디샘보(28·미국)가 파5 홀에서 ‘원 온’을 시도해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 골프 팬들의 가슴 속에 오랫동안 기억될 의미있는 장면이었다.

디샘보는 7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베이힐 C&L(파72)에서 열린 미국남자프로골프(PGA) 투어 아널드 파머 인비테이셔널(총상금 930만 달러·105억 원) 3라운드에서 버디 6개와 보기 2개를 묶어 4타를 줄이며 중간합계 10언더파 206타로 코리 코너스(캐나다)와 함께 공동 2위에 랭크됐다. 하루에 7타를 줄여 합계 11언더파 단독 선두로 도약한 48세 리 웨스트우드(잉글랜드)의 노익장도 돋보였지만 이날 주인공은 단연 디샘보였다.

디샘보가 드라이버를 들고 6번(파5) 홀 티잉그라운드에서 서자 갤러리들은 스마트폰을 들어 그의 티샷을 카메라에 담기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호수를 끼고 왼쪽으로 휘어지는 모양의 이 홀은 공식적으로 555야드지만 티잉그라운드 위치에 따라 이날은 531야드로 조정됐다. 티잉그라운드에서 그린까지의 직선거리는 350야드 안팎. 장타자들은 원 온을 노릴 수 있지만 중간에 호수가 있어 웬만한 감심장이 아니면 드라이버를 잡지 못하고, 페어웨이를 거쳐 돌아가기 마련이다. 1998년 이 대회 마지막 라운드에서 당시 32세의 존 델리(미국)가 원 온을 시도했지만 호수를 건너지 못하고 실수를 연발하면서 무려 7개의 볼을 물에 빠뜨린 채 이 홀에서 서만 13오버파 18타를 친 적이 있다.

그러나 디샘보는 달랐다. 개막에 앞서 “상황에 따라 6번 홀에서 원 온을 시도하겠다”고 공언했던 디샘보는 ‘잘라 갔던’ 1·2라운드의 달리 뒷바람이 불자 캐디와 상의한 뒤 드라이브를 꺼내 들었고, 그린을 직접 노렸다. 혼신의 힘을 다해 드라이버샷을 날린 뒤 제대로 맞았다는 듯 두 팔을 하늘로 쭉 뻗었



브라이슨 디샘보가 7일(한국시간) PGA 투어 아널드 파머 인비테이셔널 3라운드 파5(531야드) 6번 홀에서 안정적인 페어웨이 공략 대신 호수를 가로지르는 과감한 드라이버 티샷을 하고 있다. 그의 티샷은 3700야드 비거리를 기록하며 단번에 그린 근처 러프에 떨어졌고, 결국 그는 이 홀에서 버디에 성공했다.



고, 자세를 낮춰 날아가던 볼을 쫓다 호수를 넘어간 볼이 그린 근처 러프에 떨어진 것을 확인한 뒤 재차 두 팔을 번쩍 치켜들고 포효했다.

비록 원온에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캐리로 347야드를 날아가 호수를 훌쩍 넘어간 디샘보의 볼은 런까지 포함해 공식 비거리 3700야드(338m)로 기록됐다. 2003년 이후 이 홀에서 기록된 최장거리 드라이버샷이었다. 드라이버

스윙 시 클럽헤드 스피드는 시속 220km, 볼 스피드는 315km가 찍혔다. 홀까지 700야드 거리를 남긴 디샘보는 두 번째 어프로치 샷을 그린에 올리는데 실패했지만 세 번째 샷을 퍼터로 홀에 불인 뒤 결국 버디로 마무리했다.

5번(파4) 홀에서도 티샷을 357야드 날려 그린 근처까지 보내기도 했던 디샘보는 3라운드를 마친 뒤 “마치 어린 아이가 된 것 같았다. 공이 물에 빠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면서 소름이 돋을 정도였다”고 기뻐했다. “팬들이 원하는 장면을 보여준 것 같다”고 자평한 뒤 “호수를 넘겼을 때 마치 우승했을 때처럼 ‘아, 내가 해냈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다”고 밝혔다.

222야드(203m) 2번(파3) 홀에서 홀인원을 기록한 조던 스피스는 키건 브래들리(이상 미국)와 함께 9언더파 207타로 공동 4위에 올랐고, 2라운드까지 7위에 자리했던 임성재(23)는 버디 3개와 보기 3개를 맞바꾸고 5언더파 211타 공동 18위로 밀렸다.

김도원 기자 dohoney@donga.com

무죄 최종 판결 기다리다 중국 귀화…‘한국 쇼트트랙 대들보’ 임효준 왜?

‘동성 성추행’ 징계조치 정지됐지만
대법원서 뒤집힐때 남은 징계 소화
2022년 베이징올림픽 출전 불가
“다시 스케이트 신을 유일한 방법”

2018평창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임효준(25)이 중국으로 귀화를 결심했다.

임효준의 매니지먼트사 브라운컴퍼니는 6일 “임효준이 중국 귀화를 결정했다”며 “아직 한창 선수생활을 이어갈 시기에(국내에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어려움과 아쉬움에 기인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임효준은 한국쇼트트랙이 자랑하는 최고의 스타 중 한 명이다. 평창동계올림픽 남자 1500m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큰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 2019년 소피아 세계선수권대회에선 4관왕에 오르며 입지를 굳혔다.

그러나 2019년 6월 진천선수촌에서 진행된 대표팀 훈련 도중 일어난 동성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징계를 받으면서 모든 것이 틀어지고 말았다. 그해 6월 17일 대표팀의 압박 등반 훈련 도중 임효준이 주위의 다른



한국쇼트트랙의 대들보 임효준이 중국 귀화를 결정했다. 2019년 6월 발생한 동성 성추행 사건의 대법원 선고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무죄 판결이 뒤집어지면 2022베이징동계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기에 어려운 결단을 내렸다. 지난해 11월 27일 2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법원을 나서는 임효준.

선수들이 보는 앞에서 후배 황대현의 바지를 내렸고, 황대현은 “수치심을 느꼈다”며 선수촌에 성희롱으로 신고했다. 이 신고를

접수한 대한체육회와 선수촌은 쇼트트랙 대표팀 선수들과 코치진을 한 달간 퇴촌시키는 강수를 뒀다. 당시 신치용 진천선수촌장이 대한빙상경기연맹에 “인성교육과 성희롱 방지 교육을 다시 시키라”고 강력하게 경고했을 정도로 파장이 컸다.

임효준은 약 2달 뒤인 2019년 8월 8일 체육회로부터 1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고, 이에 불복해 빙상연맹을 상대로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징계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신청이 받아들여져 징계 효력은 정지됐다.

이와 별개로 임효준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2020년 5월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11월 2심에선 무죄를 선고 받았다. 그러나 검찰 측에서 항소해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만약 대법원에서 유죄로 판결이 뒤집어지면 그때부터 남은 징계를 소화해야 한다. 이 경우 징계 이행 기간이 2022베이징동계올림픽과 겹쳐 태극마크를 달고 올림픽에 나갈 수 없다. 중국 귀화를 결정한 가장 큰 이유다.

브라운컴퍼니는 “임효준이 소속팀(고양시청)과 대표팀 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고 2년을 보냈다”며 “임효준은 쇼트트랙

선수로서 다시 스케이트를 신을 수 있는 방법만 고민했다. 젊은 빙상인이 빙판 위에 서고자 하는 의지에서 비롯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대표적인 쇼트트랙 강국이다. 그러나 과거와 비교하면 전력이 크게 약화됐다. 단거리에선 우다징(남자 500m)과 판커신(여자 500m)이라는 걸출한 스타를 보유하고 있지만, 왕명, 저우양, 리자준 등 스타들이 즐비했던 시절과 비교하면 아쉬움이 있다. 평창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 1개에 그친 아쉬움을 홈그라운드에서 만회하겠다는 중국 입장에서 임효준과 같은 전천후 선수가 필요했을 만하다. 또 평창동계올림픽 때 한국대표팀 사령탑이었던 김신태 감독, 쇼트트랙 레전드 빅토르 안(한국명 안현수)의 코치진이 이미 중국대표팀에 합류해 있는 것도 임효준의 귀화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브라운컴퍼니는 “쇼트트랙 외에는 해본 적도 없고 할 줄도 모르는 한 젊은 선수의 미래를 위해 빙상 팬들이 너그럽이 이해해주시고, 마음속으로 응원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강신 기자 posterboy@donga.com

복권 발행을 통해
조성된 기금은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사업 등
복지사업과 공익사업에
사용됩니다.

Lotto 6/45 953회 당첨번호 (추첨일 : 2021년 03월 06일)

1등 당첨번호						2등 보너스 번호
7	9	22	27	37	42	34

1등 총 당첨금: **2,229,916,890원**

등위 및 당첨개수	당첨금(원)	당첨금 내역
1등 6개 숫자 일치	14	총 당첨금 중 48의 5를 공백을 제외한 금액의 7%
2등 5개 숫자 일치 + 2등 보너스 일치	102	총 당첨금 중 48의 5를 공백을 제외한 금액의 12.2%
3등 5개 숫자 일치	3,273	총 당첨금 중 48의 5를 공백을 제외한 금액의 12.2%
4등 4개 숫자 일치	146,120	50,000원
5등 3개 숫자 일치	2,331,848	5,000원

*상위 당첨금은 1개당만 당첨금액 기준입니다. (세로 공백 뒤)

· 동행복권 콜센터 : 지역없이 1588-6450 · 인터넷 당첨번호 안내 : www.dhlottery.co.kr
당첨금 지급기간 : 해당 회차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만지

복권 구입시
유의 사항

· 복권은 1인당 1회 10만원까지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청소년은 복권을 구매하거나 당첨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 자나간 복권 구매는 중독의 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중독예방센터 080-800-0501 www.ckm.dhlottery.co.kr